

보육교사의 영아발달지식과 보육효능감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조 운 숙(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 문 혁 준(가톨릭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는 만0,1,2세의 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보육교사의 영아발달지식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 영아발달지식과 보육효능감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영아반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50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10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영아발달지식에 대한 측정도구는 MacPhee(1981)가 개발한 유아발달지식(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KIDI)을 Seo(2006)가 사용한 것으로 측정하였으며, 보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일본의 櫻井(1991)이 개발한 도구를 현정환(2003)이 수정·보완한 것으로, 교사-영아 상호작용 측정도구로 임옥희, 이진숙(2006)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사후검증(Scheffé), Pearson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영아발달지식에 관한 전체 평균 정답률은 64.7%(SD=6.70)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양육 영역의 정답률이 80.5%(SD=1.45)로 가장 높았으며, 발달원리영역 75.2%(SD=1.99), 건강/안전 60.9%(SD=1.86), 발달기준/발달지표 53.7%(SD=4.54)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활동참여는 보육교사의 발달기준/발달지표 영역지식 ($r=.22, p<.01$), 보육효능감($r=.44, p<.01$)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경험다양은 보육효능감($r=.31, p<.01$)과 반응태도에서는 보육교사의 발달기준/발달지표 영역지식($r=-.18, p<.01$), 보육효능감($r=-.42, p<.01$)과 허용태도는 보육교사의 발달기준/발달지표 영역지식($r=.14, p<.05$), 보육효능감($r=-.32, p<.01$)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영아발달지식과 보육효능감은 교사-영아 상호작용을 22%설명해 주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제한된 지역과 수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영아 상호작용을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것을 토대로 하여 실시된 결과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문제가 있으나 현직 보육교사들의 영아발달지식에 관한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 영아반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교육의 요구와 필요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영아와의 상호작용할 때 높은 보육효능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참여, 경험의 다양성, 교사의 반응적 태도, 교사의 허용적 태도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교사-영아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